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47호 (2021년 2월 둘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경기도] 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정캠핑' 문화 조성 나선다	2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창업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와 함께 떠나는 온라인 여행	6
[부산광역시] 2024년 우주연구분야 최대 학술 행사 부산에서 열린다!	8
[대구광역시] 대구관광,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맞이할 준비 착착 진행	9
[광주광역시] 광주시,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뚝 올렸다	11
[대전광역시] 대전의 숨겨진 관광 명소, 관광택시로 자유롭게	12
[경기도] 경기도,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전방위 마이스 경쟁력 강화	13
[경기도] 도, 누구나 동등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15
[강원도] 강원도 관광, 위기 속 선방...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0년 성적표	17
[충청남도] 공주·태안 전통시장 2곳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19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천리길, 지질공원 연계 관광벨트 구축	20
[전라남도] 전남도·시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맞손'	22
[경상남도] 경남도,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에 414억 원 투입	2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활성화·건전성강화, 두마리 토끼 잡는다	25

[경기도] 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정캠핑' 문화 조성 나선다

- 지자체 최초 올바른 캠핑예절 정립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 추진
- '21년 도 주관 캠페인 및 시범사업 우선 추진,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 담보
- ※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을 지칭함

-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내 위·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 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캠핑장 현판을 제작·배포해 미등록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캠핑장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배달 같은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2,356개 등록 캠핑장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5개가 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2) | 게시일 : 2021.02.01.)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창업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 2. 3.~3. 9.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접수, 140개 관광벤처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전문상담(컨설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선정기업 규모를 확대('20년 119개 → '21년 140개)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평균 4천6백만 원)과 함께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집중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사업예산 97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 전부터 7년 이내까지 선발, 지역·청년·디지털뉴딜은 최대 5점 가점 부여

- 공모전에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창업자까지 참가할 수 있다. ▲ 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25개 팀)'에, ▲ (재)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75개 팀)'에,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는 '성장관광벤처 부문(40개 팀)'에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지역 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다른 지역) 기업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 3점, 청년 창업자(만 39세 이하)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한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활용 및 융·복합 관광, 비대면 관광사업인 경우 가점 1점 등 세 가지 모두 충족할 시에는 최대 가점을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2월 3일(수)부터 3월 9일(화)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tourbiz.spectory.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성장관광벤처 부문의 경우에는 추가로 3차 현장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3개 부문 최종 선정자들은 올해 11월까지 협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 관광업계 협업의 장 마련 등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지원책 강화

- 협약이 체결되면 기업당 3,000만 원부터 9,000만 원, 평균 4,600만 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맞춤형 상담(컨설팅), 관광 특화 교육, 홍보 판로개척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특히 코로나 일상 시대에 온라인으로 쏠린 여행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벤처기

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교육, 데이터 기반 마케팅, 맞춤형 조사연구 및 시험(테스트) 지원 등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 관광업계, 다른 업종 간 협업을 강화해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다.

- 관광벤처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900여 개를 발굴·육성해 관광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특히 2018년 70개 선정 규모였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올해는 140개 선정 규모로, 두 배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부산, 인천 등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창업기업 육성 사업을 시작해 관광창업지원사업은 최근 2~3년간 창의적인 관광서비스와 콘텐츠 발굴, 일자리 창출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몇몇 관광벤처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능형 놀이공원(스마트 테마파크)인 ‘9.81파크’를 개장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2배를 달성한 ‘모노리스제주파크’, 국내 최초 유료 실시간 온라인 여행(라이브 랜선투어)을 상용화해 새로운 여행 흐름을 만든 ‘(주)가이드라이브’ 등이 대표 사례이다.
- 문체부 김장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창업기업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공모전의 지원 폭을 확대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에 숨을 불어넣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 게시일 : 2021.02.0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와 함께 떠나는 온라인 여행

- 2. 4. ~ 15. '2021 관광두레 전국대회, 190여 개 주민사업체 만남의 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와 함께 관광두레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월 4일(목)부터 15일(월)까지 '2021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5개 지역의 600여 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만지(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축제(페스타)-온라인으로 떠나요'라는 주제로 주민사업체 190여 곳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만나 볼 수 있도록 관광두레 온라인 여행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 2월 5일(금)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 으뜸 두레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 관광두레 피디가 소개하는 지역 주민사업체 현황과 연계망(네트워킹), ▲ 특별 강연 등 공식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통해 우수한 주민사업체 8곳을 으뜸 두레로 선정했다. 그 중 지역 내 수제 맥주 동호회에서 시작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화한 강원도 속초의 '몽트비어(크래프트유니온협동조합)'를 비롯한 으뜸 두레 3곳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 '관광두레 주만지 페스타 누리집'(www.joomanji.kr)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90여 곳과 함께 진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장'과, 으뜸 두레를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생생한 영상과 체험기 등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 등을 준비했다.
- '누리집에 숨어있는 관광두레 캐릭터 두키 두비를 찾아라!', '관광두레를 응원해 주세요!'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하고 추첨을 통해 기능성 면텐트, 캠핑 의자 등 여행 관련 용품과 관광두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루어진 '관광두레 행운상자(럭키박스)'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joomanj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 게시일 : 2021.02.04.)

[부산광역시] 2024년 우주연구분야 최대 학술 행사 부산에서 열린다!

-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 총회 부산 유치 확정
- 2024년 7월, '함께하는 우주연구'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 예정
- 우주과학·탐사 등 우주연구분야 4천여 개의 학술발표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 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3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이하 “COSPAR”) 총회에서 2024년 열리는 ‘제45회 COSPAR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부산)이 아시아권의 경쟁국인 중국 (상하이)을 제치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COSPAR(COMmittee on SPace Research)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과학협의회(ISC) 산하 특별위원회로, 우주 인프라를 갖추고 우주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44개 회원국, 약 9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운영 중임

□ COSPAR 총회 개최지 유치를 위해 부산시, 부산관광공사와 벅스코는 2019년 유치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유치 제안 PT 발표 및 현장실사를 통해 국내 4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제주) 중 부산이 최종 선정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이후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회의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이번에 부산시가 유치한 제45회 COSPAR 총회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벅스코에서 ‘함께하는 우주연구: Team Spirit in Space Research’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양한 초청 강연 및 학술발표와 함께 ‘우주 영화 축제’, ‘우주과학자와의 만남’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 행사들도 기획된다.

□ 한편, ‘COSPAR 총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전 세계 우주 관련 학자 간 교류 도모, 우주 각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하여 세계 약 60개국 3,5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한다. 대륙별 순환개최를 원칙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 COSPAR 총회의 성공 유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천문·우주 분야 연구자 및 NASA 등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 관계자에게 과학기술 중심 도시 부산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고, 국제 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051-888-7734) | 게시일 : 2021.02.04.)

[대구광역시] 대구관광,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맞이할 준비 착착 진행

- 안내, 쇼핑, 숙박, 교통 등 관광객의 입장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
- 소규모 비대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

-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2022년 그동안 억제됐던 관광욕구가 분출할 것에 대비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먼저,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동성로를 자유롭게 거닐고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구청과 협조하여 ‘스마트쇼핑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쇼핑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동성로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구매 희망 물건의 판매 매장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한 물건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제시된 미션을 수행하면 사용이 가능한 할인권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미션투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사후면세점 10개소를 추가 가맹해 사후면세점 지도를 제작·배부했고, 결제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820개소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꾸준히 도입하는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 중이다.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및 중앙로역 등 주요 교통거점에 다국어 안내판을 확충했고, 대중교통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외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한국어(영어)로만 정류장을 안내하는 버스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출되는 ‘ 시내버스에 다국어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언어적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먹고 싶은 음식을 안심하고 고를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60개소의 음식 주재료와 간단한 조리방법을 소개한 ‘모바일 메뉴판’을 제작 중이며,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무슬림 관광객을 겨냥한 각각의 식당을 발굴하여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또한, 데이터이용료 걱정 없이 대구의 정보를 마음껏 검색하고, 대구에서의 일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대구가 가진 매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102개소의 ‘무료 와이파이 구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갈진수 대구시 관광과장은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대폭 줄었으나, 지금이야말로 대구관광이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적기”라며,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어 급증할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을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광과(053-803-6511) | 게시일 : 2021.02.02.)

[광주광역시] 광주시,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돛 올렸다

-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예술여행 대표도시 비전선포식' 개최
- '2021 비엔날레 광주 여행의 해' 관광상품 운영
-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예술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비전선포식을 열고 예술여행도시 광주 여행 붐 조성을 위한 돛을 올렸다.
- 비전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광주관광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이용섭 시장의 비전선포와 김용집 시의회 의장, 정길영 광주관광협회장의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의 관련 사업 소개에 이어 한국관광학회 주관 예술관광도시 컨퍼런스도 열어 광주시의 예술관광 진흥 노력을 전국에 알렸다.
- 이용섭 시장은 비전선포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천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관광도시 광주,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의 힘찬 도약을 선포하고 “가장 광주다운 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관광산업화해서 찾아오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광주시는 비전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비전으로 예술과 여행이 공존하며 함께 숨 쉬는 광주만의 문화, 광주의 삶을 토대로 누구든 즐기고 공감하며 머무는 여행, 문화가 예술이 되고 여행이 예술이 되는 광주만의 예술여행, 세계적인 고품격 예술여행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키로 했다.
- 올해는 비전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예술여행중심도시 슬로건 공모 이벤트와 '2021 비엔날레 광주 여행의 해'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예술관광 전문인력 100명 양성 및 특화 예술여행업체 지원 등 지속가능한 예술여행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20) | 게시일 : 2021.02.05.)

[대전광역시] 대전의 숨겨진 관광 명소, 관광택시로 자유롭게

- 대전관광택시 이용요금 기본 3시간 5만원, 관광지 선택 가능

□ 대전시는 2월 1일 ‘대전 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9대의 관광택시로 본격적으로 맞춤형 관광 운행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 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대전 관광택시 운송사업자, 대전 관광택시 탑승 초청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대전시는 관광택시 운영에 앞서, 먼저 여행약자인 어르신, 저소득층 가족을 초청하여 대전의 주요 관광지를 약 5시간 동안 둘러보는 특별 이벤트도 개최했다.
- 대전 관광택시는 택시기사가 계절별 여행지, 숙박시설, 맛집을 추천하는 등 대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전시는 지난해 8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비흡연자면서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대상으로 관광택시 운송사업자를 선발해 관광택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 대전 관광택시 예약은 금강부릉이 시스템(<http://www.ggtaxi.kr>)에서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 5만원, 추가요금은 시간당 1만5천원이다. 추천 코스 외에도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지 선택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다.

□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 관광택시 운영을 계기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택시업계와 관광업계 모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택시가 대전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전관광택시 예약시스템은 2020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9권역(대전·공주·부여·익산)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042-270-3981) | 게시일 : 2021.02.01.)

[경기도] 경기도,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전방위 마이스 경쟁력 강화

- '21년 마이스 발굴에서 유치, 유치확정/개최 등 단계별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 전문가 컨설팅 강화, 행사장 사전답사 심사추가
- 경기도 숨은 특색있는 행사개최지 발굴 및 홍보로 마이스 자원 활용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전방위 마이스(MICE: 기업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전시 · 이벤트 등) 경쟁력 강화 체제를 갖춘다.
- 상반기에는 비대면 마케팅 강화, 화상회의 시스템 공모, 유니크 메뉴(특색있는 행사개최지) 발굴,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등 마이스 유치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실행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해외 대형 이벤트 개최 등 공격적인 마이스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 2021년 마이스산업 육성 세부 사업계획은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확대 ▲마이스 마케팅 강화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구성된다.
- 도는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발굴된 국내 · 외 1만여 개의 데이터를 국가별, 분야별, 유력군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집중 관리하고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발굴에서 유치, 그리고 유치확정/개최 단계별 실행과제를 시스템화해 코로나 이후의 본격적인 마이스 유치개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뉴스레터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6~9월 중 하반기에는 코로나 완화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마이스 붐업을 위한 해외 현지 이벤트를 추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경기도 마이스 콘텐츠 발굴 및 도 전략산업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사업은 지난해 5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3~4건으로 조정해 선정하며, 마이스 행사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성장단계와 지역 대표 마이스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우수단계로 구분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존 사후 컨설팅 중심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행사장 사전답사를 신설해 행사의 방향성 설정, 행사 콘텐츠 고도화, 안전 · 방역 컨설팅 강화로 국제행사로 발돋움하는 도의 대표 마이스로 육성할 방침이다.
- 도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벤션센터, 호텔 등 국제회의 개최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

원하는 등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 이후 행사가 중소 규모로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경기도내 숨은 유니크 메뉴를 발굴·홍보해 마이스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작년 한해는 전 세계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등 마이스 바이어 데이터를 분야별 세분화 발굴해 코로나 이후 활동을 대비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본격적인 유치를 위한 세부 단계별 실행과제를 가동하는 한편, 하반기 인접국가에서 마이스 붐업 이벤트를 개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7) | 게시일 : 2021.02.03.)

[경기도] 도, 누구나 동등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 경기도, 2021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군(관광지) 공모 : '21. 2. 8. ~ 2. 23.
-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 운영,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콘텐츠를 통한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관광약자 인식개선 추진

- 경기도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시군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 운영, 무장애관광 온라인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우선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
- 공모분야는 보도 단차 제거 등을 통한 보행로 개선과 가족화장실 설치 같은 편의시설 개선분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모 접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지는 해당기간 내에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3곳 이상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약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수요자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2대)를 운영하는 경기여행누리 사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해 자연경관 감상 등 비대면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차 없이 왕복 2시간 이내의 '찾아가는 드라이빙' 신청 대상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운영해 일상에 활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광지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무장애관광 정보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 경기관광포털(ggtour.or.kr)에 게시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현장감 있게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관광약자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가득하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군 공모를 통한 관광지 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무장애관광 도시 이미지

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1) | 게시일 : 2021.02.07.)

[강원도] 강원도 관광, 위기 속 선방...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0년 성적표

-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에서는 KT 통신 데이터와 BC카드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019년 대비 8.8% 감소한 1억 3,106만 여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 이에 따르면, 2020년도 강원도 관광은 타 광역지자체 평균 감소 추정치인 1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위기 속 선방하였다는 것이 관광 빅데이터로 입증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정지역 강원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한 관광 선호 경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20년 내국인 관광객의 도 방문은, 당해 1월까지의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월 이후부터 3월, 4월, 9월, 11월, 12월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코로나19가 전개되기 이전인 2020년도 1월은 약 300만 명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여 연중 최고 증가율인 27.8%를 보였고, 이후 방문자의 추이는,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전개 및 이에 따른 대응 체계에 연계하여 월별 변동폭이 나타났다.
- 목적지별로 보면, 2020년 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강릉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어서 원주시, 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들은 국립공원 소재 지역, 수도권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 해안 지역 등인 바, 관광객이 내륙과 해안 지역에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18개 시군 중 관광객 감소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20대가 약 2,8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약 2,340만 명, 40대가 약 2,350만 명, 50대가 약 2,360만 명으로 비슷한 참여율을 보임에 따라, 강원도 관광에서 젊은층의 참여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소비 형태로 보면, 2020년 강원도 관광소비는 약 1조 9,17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3.5%가 하락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소비층인 30, 40, 50대 관광객의 관광 참여 감소와 관광 소비지출 감소 영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시점인 5월과, 기존 성수기인 여름 시즌은 감소폭이 낮았으며, 12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의 방역조치 강화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관광 빅데이터는 강원도관광재단, (주)KT,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연구단과 공동으로 전년도 강원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외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강원도관광재단은 이번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 중 관내 시군별 중복 방문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강원도관광재단 관계자는 “관광객 이동에 기반한 마케팅을 위해 2021년부터 도 관광 빅데이터를 월별로 분석하여 각 시군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강원관광재단(033-269-8947) | 게시일 : 2021.02.02.)

[충청남도] 공주·태안 전통시장 2곳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 공주 유구시장·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 육성

- 충남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공주시 유구읍 소재 유구시장과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도 수산시장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성 및 장점을 발굴·육성하는 내용이다.
- 이번에 선정된 시장 2곳에는 앞으로 2년간 각각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문학·관광·역사와 연계한 투어 코스 등 문화콘텐츠 개발 △시장 대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주 유구시장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 등 ‘편리한 지불·결제’ △디자인 매뉴얼 북 제작 등 ‘고객 신뢰 제고’ △아케이드 기둥 환경 개선 등 ‘위생·청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상인조직 강화’ △자율소방대 구성·훈련 등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사업을 통해 특성화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은 해양·수산 문화관광 거점 특화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감성 포토존 구성, 지하주차장 LED조명 조도 확보 등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 △시장 정체성 BI 개발, 외벽 디자인 등 ‘시장 정체성 강화’ △특화상품 개발 등 ‘공동체 상권 활력 제고’ △가을여행주간 수산물 축제 등 ‘시장 활력 제고’ △결제 편의, 고객 신뢰, 위생·청결 향상 등 ‘다다익선’ 사업을 추진한다.
-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두 전통시장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3348) | 게시일 : 2021.02.03.)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천리길, 지질공원 연계 관광벨트 구축

- 통합브랜드로 대한민국 생태관광 주도
- 생태관광 캐릭터 초록요정...마을기업 육성, 특산품 등 소득상품 개발
-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인증 추진

□ 전라북도는 3일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과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도는 지난 2015년 민선 6기부터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자연 자원에 기반한 보전중심으로 이동하는 관광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도내에 조성된 수많은 길 들 중에서 생태 경관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들로 14개 시군 44개 노선 405km를 선정하여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써왔다.
- 또한 선유도, 말도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 이후 우리나라 대표 지질공원으로 비상하고 있는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수한 도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가 생태관광 거점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생태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그간 육성한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지질공원을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산과 들, 물, 숲을 아우르는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 전라북도는 생태관광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그간 육성한 생태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생태자원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5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익 창출형 프로그램으로 이끌 계획이다.

* 길안내(Walk), 체험(Play), 식사(Food), 숙소(Stay), 기념품(Goods)

- 청정 전북의 땅, 길, 강, 산, 평야, 갯벌, 바다 등 자연의 생물다양성과 생명력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하는 생태관광 캐릭터 ‘초록요정’을 개발하여 각종 탐방 프로그램 등 홍보·운영에 활용하고, 생태탐험 브랜드인 ‘초록원정대’도 운영해 생태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전북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의 자연유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 관련 국가 국제 브랜드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 생태관광의 일환으로서 도내 곳곳에 분포되어있는 지질명소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서해안권 지질공원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라는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 그간 인증된 서해안권(해안형)과 진안·무주(산간형)를 비롯해 고군산군도(도서형)가 추가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운영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지질 탐방이 가능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전북의 자연유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의 산하가 국내 최고의 힐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자연생태과(063-280-4176) | 게시일 : 2021.02.03.)

[전라남도] 전남도·시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맞손’

- 안전하고 품격 높은 관광시스템 구축...관광업계와도 협력

- 전라남도가 코로나 이후 전남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안전한 음식, 해양, 문화, 생태 자원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여행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 전라남도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도시군 관광실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기간 연장, 도가 운영 중인 관광진흥기금의 용자 대상 확대, 시군 행사축제 개최 시기 등의 상호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전남도는 전남관광플랫폼(J-TaaS) 구축, 전라남도 방문의 해 추진, 관광신산업 창업지원, DMO 육성지원, 관광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등 올 한해 추진할 주요 관광 시책을 소개했다.
-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명품 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이 가운데 전남관광플랫폼은 손바닥 안에서 지역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교통, 숙박, 식당 등을 실시간으로 예약결제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코로나 이후 전남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유미자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품격 높은 관광시스템을 촘촘히 준비해 전남이 대한민국 체류형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관광업계 등과도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남도여행 길잡이에 안전여행 정보 소개,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청정 관광지를 바이러스 프리존으로 지정 등 코로나 종식 시까지 안전한 전남여행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0) | 게시일 : 2021.02.05.)

[경상남도] 경남도,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에 414억 원 투입

- 휴양·치유를 위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등 267억 원
- 체험·교육을 위한 산림레포츠 시설,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129억 원
- 숲해설, 유아숲지도 등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18억 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 누구나 숲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414억 원을 투입한다.
- 도는 다양한 분야의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먼저 도민의 정서함양·휴양을 위한 자연휴양림 13개소 조성·보완에 139억 원, 숲 속에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등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3개소 조성에 42억 원, 산림욕장 보완에 5억 원,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숲길 보완과 연결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 그리고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모험형 시설인 산림레포츠 시설 2개소 조성에 48억 원, 유아의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5개소 조성에 9억 원, 목재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2개소 조성에 38억 원을 편성했고 수목유전자원 증식·보존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교육을 위해 수목원 4개소, 생태숲 3개소 조성 보완에 34억 원을 투자한다.
- 더불어, 휴양시설을 찾는 도민에게 산림휴양, 치유의 이해를 높이는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억 원을 투입해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52명을 배치하며,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상에 지친 도시민에게 찾아가는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해설, 도심 속 찾아가는 숲이야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금원산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과 연계한 금원산 향노화 치유힐링단지 조성 기본 계획용역을 추진해 산림휴양치유 시설의 중장기적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 현재 경남도 내에는 산림휴양시설 93개소(자연휴양림 16개소, 치유의 숲 4개소, 산림레포츠시설 1개소, 산림욕장 20개소, 생태숲 11개소, 수목원 5개소, 박물관 1개소, 유아숲체험원 19개소, 목재문화체험장 7개소, 정원 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 경남관광길잡이 내 일부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산림휴양 정보는 도민들이 더욱 이용하기 편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도민의 피로감이 높고 산림휴양시설 이용도 제한적이나 코로나19 이후 숲을 통한 휴양과 치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도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 중인 27개소 시설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학 협력강화,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63) | 게시일 : 2021.02.0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활성화·건전성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제주도,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실시
- 포스트코로나시대 도민과 상생하는 카지노정책 마련 등 통해 카지노 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카지노 관리·감독의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카지노 산업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둔 카지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로운 트렌드 변화 대응 및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등 카지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2차 종합계획 : 2022년 ~ 2026년

- 또한, 카지노 국제 정책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이후의 국내·외 변화상을 공유하고, 카지노 분야의 각종 규제 사항을 별도 파악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카지노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발굴해 나간다.
 - 우선, 그동안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사행산업이라는 사회 인식으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카지노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국내 카지노 분야 지역사회 공헌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부작용 저감 방안 마련 등 카지노 업계와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 이어, 카지노 종사원 등 업계 임직원 가운데 교육 우수자 등을 선발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해 구축한 카지노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카지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자료나 국내·외 동향도 좀 더 구체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도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의 전문화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 6개 중점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감독 기법 외에도 온라인 방식도

일부 접목시켜 다원적이고 고도화된 감독체계를 갖춘다.

- 카지노 분야 전문검사는 △카지노 매출액 조사 △해외이주자 부정 출입자 점검 △자금세탁방지 검사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검사 △카지노기구 검사 △전산시설 검사 등 6개 분야이다.

* 도내 카지노 기구·시설 : 게임기구 9종 796대, 전산시설 8대

- 이 중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카지노기구·전산시설 검사는 종전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064-710-8811) | 게시일 : 2021.01.28.)